

‘호접몽’…치유의 여정 속 마주한 꽃과 나비의 꿈

고미아 개인전 ‘호접몽胡蝶夢’…3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내면에 잠재된 감정·자아 흔적, 섬세한 선묘·따스한 색채로 담아내
‘성장과 희망’·‘자유와 변화’…존재의 의미 되새기는 깊은 울림으로

소녀의 순수한 감성과 꽃과 나비 형상이 따스한 색채의 회화로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는 오는 31일까지 고미아 작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 ‘호접몽胡蝶夢’을 개최한다.

작가는 오랜 시간 인체를 탐구해 온 작가로, 유려한 필선과 부드러운 색채의 인물 표현이 돋보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주작업은 공들여 대상물을 정교하게 채색하는 기법인 전통 공필화다. 특유의 깊이 있는 선묘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회화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인물화는 이상화된 아름다움의 표상이 아닌,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된 감정과 자아의 흔적을 담은 진솔한 인물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

라, 정신적 해방이자 치유의 과정이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심리적 결정론에 따르면, 예술가는 어린 시절의 무의식 속 갈등과 소망을 작품으로 승화시킨다고 한다. 작가의 회화 또한 이러한 심리적 기원을 품고 있다.

작품 속 소녀들은 작가의 내면이 담긴 자화상이다. 어릴 적 이상을 실현해줄 존재다. 소녀들의 고요한 표정과 차분한 눈빛에는 성장의 아픔과 삶의 상흔이 스며 있지만, 동시에 그 너머로 나아가려는 회복의 의지와 온전함을 향한 마음이깃들어 있다.

작가는 이러한 감정을 인물의 표정에 섬세하게 담아내며, 소녀의 순수한 감성과 따스한 색채를 더해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화면 속 꽃과 나비의 형상으로 확장된다. 꽃은 성장과 희망을, 나비는 자유와 변화, 영혼을 상징한다.



‘소녀-꽃이되어’



‘소녀-꽃이되어’



‘나에게로’

김아연 광주예술의전당 큐레이터는 “꽃과 나비, 그리고 소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 속 잠들어 있던 순수함과 희망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는 행위를 통해 살아 있음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치유의 여정이 관람자에게도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미아 작가는 영남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조선대 대학원에서 한국화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경산, 광주 등에서 개인전 4회를 가졌으며 대전예술가의 집, 관선재갤러리 등 다수의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지역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 예술, 해상 실크로드 무대 오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은 지난 10~13일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서 열린 ‘2025 해상 실크로드 국제문화관광축제’에 초청 받아 지역 예술단과 함께 현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는 중국 문화여유부와 푸젠성 인민정부가 후원하고, 취안저우시 인민정부가 주관한 국제 문화행사다.

해상 실크로드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각국의 전통과 현대 예술을 아우르는 공연과 전시가 펼쳐졌다.

취안저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지원포럼은 이번 행사에 광주 지역 예술단인 FM무용단을 파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예술적 역량을 현지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됐으며, 관객과 관계자들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취안저우 관광축제 초청 공연 성료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광주 예술의 국제적 경쟁력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원포럼은 앞으로도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한편 광주시는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와 함께 2014년 제1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는 2012년 5월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한·중·일 각 1개 도시를 선정해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최명진 기자

‘44년 대금 인생’…그리움을 담다

대금 연주가 채광자 독주회…20일 동구 미로센터 미로극장 1관

대금 연주가 채광자의 제12회 대금독주회 ‘淸(청)의 아름다움 韶(청)의 그리움’이 오는 20일 오후 5시 미로센터 미로극장1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대금을 손에 잡은 지 44년을 맞은 채광자가 오랜 시간 갈고닦아온 음악 세계와 내면의 흐름을 관객에게 온전히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채광자는 그동안 대금 한 줄기 소리를 좋아 배우고 탐구해 왔다. 이번 독주회는 그의 예술적 여정이 응축된 자리이자, 전통 산조의 깊은 멋을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용석류 대금산조가 연주된다. 서용석류 산조는 남도 음악 특유의 정확한 불임새와 다양한 조 변화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독주회가 특별한 것은 채광자 개인의 무대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함께 연습하며 성장해

온 제자들이 무대에 함께 오른다는 점이다. 스승과 제자가 흐름을 나누며 산조의 흐름을 공유하는 장면은 전통예술의 계승과 교육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채광자 연주자는 “전

통음악의 맥을 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울림을 나누는

일”이라며 “이번 공연

이 관객들에게 우리 산

조가 지닌 깊이와 따뜻

한 울림을 전하

는 시간이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